

아 · 태 Resonsible Care대회 개막

제8회 대회 서울 개최 ... 국내 화학산업의 자발적인 RC활동 도약 계기

2003년 11월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 Responsible Care 대회가 각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된다.

2003 아시아·태평양 Responsible Care 대회(APRCC)는 정종구·김범 공동준비위원장의 개회사와 노기호 KRCC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한명숙 환경부장관의 경축사로부터 시작된다.

APRCC는 1995년 5월 홍콩개최를 시작으로 해마다 아시아 국가를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제 8회 대회로 서울에서 개최하게 됐다.

APRCC는 아태지역의 화학산업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화학산업의 환경 안전 및 Responsible Care관련 정보 교류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Responsible Care협의회와 APRCC 준비위원회는 서울대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국내 화학산업의 환경·안전·보건 개선활동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PRCC 서울대회는 기존 회의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특징인데, Workshop과 Forum을 구분해 Workshop에서는 각 국가 또는 기업의 사례와 경험을 제공하게 되고, Forum에서는 패널 토의를 통해 각 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김선환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1/04>